



내년에 선령 25년되는 케이프사이즈선박 56척 케이프사이즈 주고객인 호주 화주 배제방침

내년에 선령 25년에 도달하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이 56척에 달함에 따라 이들 선박의 해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들 선박의 해체가 이루어 질 경우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의 공급이 타이트해져 부정기선화물선 시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철광석과 연료탄 산유국인 호주의 2대 대형화주인 BHP 등 양상의 합병회사인 선박검사회사 라이트쉽은 이미 선령 25년된 선박의 이용을 배제키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노후선의 경우 이중선측으로 개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8만DWT급 이상의 선령 25년을 맞이하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은 금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2006-2007년중에 56척에 달하는 등 전체 케이프사이즈선박의 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박검사회사인 라이트쉽이 요구하는 선체개조시 그 비용이 막대해 실질적으로 노후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하다. 2년전 일본선사의 광석전용선에 대해 용선 불가의 판정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해체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선령 25년에 이르는 8만DWT 이상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은 지난 2005년까지만해도 2-3척에 불과했지만, 2006년 27척, 2007년 29척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 전체 약 670척의 8%에 해당하는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이 주요 광석 산지인 호주에서의 운항이 곤란해진다.

한편, 케이프사이즈의 2006년 17만DWT 이상의 신조 케이프사이즈선박 준공척수는 40척에 이를 전망이다. 케이프사이즈 시황은 2004년에 사상 최고의 호황을 구가한 이후 2005년에 조정에 들어갔

는데, 신조선의 공급압력이 시황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대형해운선사의 관계자는 "중국의 조강생산의 확대로 신조선의 공급압력은 충분히 흡수된다"며, 노후선박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선복 공급이 타이트해져 케이프사이즈 시황을 회복시키는 재료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K-Line 선대정비 위해 8,000억엔 투자

일본선사인 K-Line은 선대정비를 위해 192척의 신조선 발주에 8,000억엔을 투자한다.

동사는 세계 해운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8,000TEU급 대형컨테이너선 5척을 비롯하여 중국과 인도 중심으로 날로 증가하는 철광석 수송을 위한 케이프사이즈선박 등 모두 192척의 신조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신조선 발주 등 선대확충에 나선 K-Line은 투자기간이 끝나는 2008년에는 선대가 500척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자사소유와 용선비율은 6:4정도이다.

당초 K-Line은 지난 2005년 4월 선대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규모를 7,300억엔, 신조발주를 181척으로 잡고, 사선과 용선비율을 7:3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원재료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투자규모와 신조발주 척수를 늘리기로 했다.

K-Line을 비롯하여 NYK, MOL 등 일본 3대 선사의 경우 모두가 선대정비에 나섰다. NYK의 경우는 2004년말 현재 운항선박이 660척인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조3,800억엔을 투입, 신조선을 278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MOL은 2004년말 현재 운항선박량이 663척인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조4,500억엔을 투자하여 287척의 선박을 확보할 방침이다.